

가뭄·폭우·폭염...극한 기후 대책 수립해야

광주, 아스팔트 뒤덮혀 담수 못해
공공기관에 빗물저장고 설치
도심 공원·녹지 확대 의무화
도시·농촌 시설 물관리 중심으로
기존 도시개발 방식 혁신해야

가뭄, 폭우, 폭염 등 극한 기후가 빈번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그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공간, 하수 시설, 하천 제방, 재난 대비 장소 등을 조성·설치하는데 있어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적용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단지 조성이나 공공기관 건설 등 도시계획 및 시설 계획시에 극한 기후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원이나 하천 정비, 빗물저장고 설치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0년 만의 극한 가뭄으로 동북댐 등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지고 완도의 일부 섬은 지난해 5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7월 계속된 비로 댐의 저수율을 회복하고, 제한급수도 해제됐지만 가뭄과 폭우에 의해 시민들의 희생이나 피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여름철 도시·농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비해 도시의 담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의 경우 하천·저수지 시설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의 공간이 아스팔트, 시멘트, 대리석 등으로 채워지면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 광주전, 우수(빗물)·오수(하수)관을 통해 영산강으로 바로 흘러가거나 용량을 넘어설 경우 도심 침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뭄에 대비해 신규 학교, 공공기관 등에 빗물저장고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빗물저장고를 설치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 내에 공원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빗물이 흐를 수 있는 도시 내 하천을 복원하는 등 도시 내부에서 빗물을 흡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는 등 기존 도시개발 방식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도시개발 방식의 혁신이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아스팔트, 시멘트 등의 복사열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심 녹화에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남의 경우 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정비에 있



광주 양림동 평귀마을 찾은 잼버리 대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만 참가자들이 13일 오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평귀마을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은 평귀마을 외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전망대 등을 둘러본 후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 기존 100년 빈도, 50년 빈도가 아닌 200년 빈도, 500년 빈도로 범위를 넓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 역시 시설 기준에 잡초하도록 하면서 물 저장시설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빗물 저장, 지하수·지표수 조사 등 기본적인 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하천, 저수지 등의 범람 피해 지도를 제작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에 나서면 한편 가뭄에 대비, 각 시·군 중심 저수지 및 저수시설을 지정해 집중관리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서도 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확보와 물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빗물 관리와 물의 재이용 촉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 물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이상기후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도시·농촌이 지독한 가뭄, 폭우, 폭염, 폭설 등 극심한 자연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따르기보다 가장 정도가 심한 상황을 상정해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美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 <관련기사 4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의 결과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저녁(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3국간 협의체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번 주 내내 무더위 광주·전남 30~33도

이번 주 내내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부터 이번 주 내내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1도,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 되겠다"고 13일 예보했다.

14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보이고,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에 분포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며 무덥겠다.

지난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나주, 구례, 화순, 고흥, 순천, 장흥, 무안, 신안)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남 전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다.

폭염 특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도심 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광주·전남에는 5~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야외 활동을 이어 나갈 경우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민 절반 "남북 자유왕래 2국가 원한다" ▶2면

총장로 르네상스 사업에 상인들은 불만 ▶6면

이강인 PSG 데뷔...메시 공간서 즐긴다 ▶22면



내일 광복절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3년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